

Q. Love vs Lust

신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인터넷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자꾸 보게 되네요. 잘못인 줄 아는데도 끊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도 들어요. 저 혼자 보는 것이고,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런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A.



찬미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성(性)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창세기에는 최초의 사람 이었던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 아담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창세 2, 23)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찬미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알몸인데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 것이지요. 이것을 원순수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의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림 · 이재림 비비아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처럼 알몸이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는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사랑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롭고(Free), 온전하고(Total), 충실하고(Faithful), 생명으로 이어지는(Fruitful) 사랑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조건을 걸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인격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온전하게 서로를 주고받습니다. 몸만 나누고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진솔하고 순수한 마음을 온전히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합니다. 그 누구도 이 둘의 관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은 배타성을 띠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이어야 하지,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생명이라는 결실을 맺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적인 쾌락만 누리고 생명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도록 우리는 불림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Love)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소가 결핍된 음욕(Lust)에 대해 살펴볼까요? 칠죄종 중의 하나인 음욕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음욕에 빠진 사람은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서로의 몸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서로를 순수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때의 눈은 '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후, 둘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순수하게 '보는 눈'이 아니라 '보려

는 눈'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음욕에 빠진 사람은 '보려는 눈'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을 봅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을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사랑을 어떻게 왜곡할까요? 사랑의 조건은 자유롭고(Free), 온전하고(Total), 충실하고(Faithful), 생명으로 열려 있다고(Fruitful)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음란물 안에서 남녀의 성행위는 어떤가요? 그들은 자유로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던 저는 경기장에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스포츠 산업 규모가 정말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더군요. 현재 미국의 3대 스포츠는 풋볼, 야구, 농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터넷 포르노 산업은 이 세 가지 스포츠를 합한 것보다도 산업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와 닿으시나요? 이들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성을 사교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란물상의 남녀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만 주고받습니다. 음란물을 접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부분만 봅니다. 몸의 특정 부위만을 '보려는 눈'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음란물에는 충실





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사랑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보는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음란물에 나오는 성행위도 충실함과 거리가 멉니다. 성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소유하려 합니다. '따 먹었다'는 속된 말을 내뱉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의 성행위는 생명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 쾌락만을 추구하고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 사랑, 생명, 책임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자주 접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아니라 '보려는 눈'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음욕(Lust)이 아니라 사랑(Love)을 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충실히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